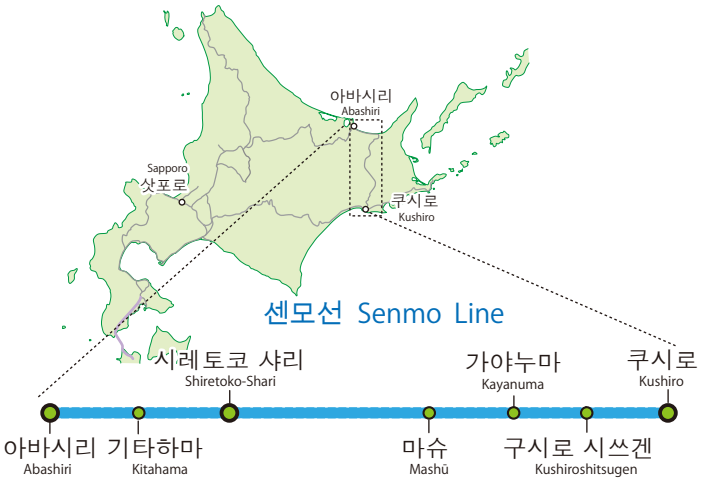
April 1, 2024

음성 안내로 홋카이도의 자연을 즐기세요!

센모선(구시로~아바시리) 열차에서 '음성 안내' GPS 앱을 이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모선은 구시로에서 아바시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도쿄도 23개 구가 모두 들어갈 정도의 면적을 가진 일본 최대의 습원, 구시로 습원. 일본에서 28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기타하마역은 '오호츠크해에 가장 가까운 역' , 그리고 '유빙에 가장 가까운 역'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매력 넘치는 센모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일 년 내내

○실시구간: 구시로 ~ 아바시리

○실시내용: 소지하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무료 앱 'kokosil'을 다운로드하여 본 앱을 실행하시면, 시행 구간에 다가갔을 때 GPS로 위치를 인식하여 볼거리 개요를 4개 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자동 음성 안내합니다.

○사용 이미지:

'kokosil®' 앱을 미리 다운로드 'kokosil 선택'에서 'JR 홋카이도 연선 관광 가이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폰이 없을 경우 재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 안내' GPS 앱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통신비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단말: iOS11 이상의 iPhone 또는 iPad/ Android6.0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단말

○볼거리

◆가야누먀역

지금은 무인역이 되었지만, 예전에 역무원이 있었던 시절에는 먹이를 주어 두루미가 날아오는 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먹이를 찾아 역 주변에 두루미가 찾아옵니다. 운이 좋으면 역에서나 차창 너머로 두루미를, 또한 겨울에는 큰고니도 볼 수 있습니다.

◆기타하마역

승강장 바로 옆에 펼쳐지는 웅대한 오호츠크해. 한겨울이 되면 머나먼 아무르강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 다다른 유빙이 바다를 가득 메운, 유빙 벌판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옆에 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오호츠크해와 시레토코 연산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

1 . 삿포로에서 구시로까지 특급열차로 약 4시간

2 . 삿포로에서 아바시리까지 특급열차로 약 5시간 25분